

# 北宋代 黨爭의 전개 과정과 성격 고찰

梁 鍾 國\*

## 〈目 次〉

- |                 |                  |
|-----------------|------------------|
| I. 序 言          | V. 哲宗代 이후 黨爭의 심화 |
| II. 黨爭의 발생배경    | VI. 黨爭 구성원의 성격분석 |
| III. 仁宗代 黨爭의 발생 | VII. 結 語         |
| IV. 神宗代 黨爭의 재개  |                  |

## I. 序 言

北宋代에는 黨爭이<sup>1)</sup> 王朝 中期부터 末期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官僚社會 전체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宋史』列傳에 등재된 中期 이후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자가 黨爭에 관계하여 자기세력의 浮沈에 따라 中央과 地方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執權勢力이 바뀔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 1) 黨爭은 朋黨과 朋黨 사이의 다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왕조에 있어서의 政爭의 특수한 형태를 지칭하거나, 중국이나 일본의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朋黨이란 관료가 정치적 주의, 주장에 따른 목적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결합하여 상대를 배척하는 배타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朋黨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기된 관료간의 다툼은 黨爭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朋黨 형성의 움직임이 없이 다만 이념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臺諫의 직과 執政의 직에 있던 관료 사이에서 야기되었던 英宗代 漢議와 같은 官制上的 논쟁은 黨爭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宋王朝의 정책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로, 우리는 宋代史의 이해를 위해서는 黨爭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국내는 물론 중국의 學界에서는 北宋代 黨爭에 관해 독립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나 연구서적 가운데 黨爭에 관한 사항이 부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1930年代부터 北宋代 黨爭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측면에서의 고찰이 거듭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2)</sup> 그러나 그 논의의 대상을 보면, 黨爭의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하게 다루었거나 아니면 발생원인 또는 특정한 시기의 전개과정 및 그 성격 등과 같은 세분화된 내용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北宋代 전반에 걸친 黨爭의 실체와 성격에 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느정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宋代 政治社會의 발전과정 속에 자리잡고 있는 黨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宋代史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唐의 경우에도 黨爭은 심하여 14代 임금 文宗은 “河北의 賊을 없애기는 쉬워도 朝廷內의 朋黨은 없애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宋代의 黨爭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이전 시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이전의 黨爭은 주로 王朝가 末期에 접어들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있는데 비해 北宋代에는 王朝 초기부터 黨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中期부터 시작된 黨爭은 北宋이 망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른바 宋代의

2) 일본학계의 黨爭에 관한 논문은 吉田清治, 「北宋に於ける黨爭の主因について」『歴史と地理』, 32-4(1933)에서 片野裕子, 「北宋時代の黨爭—特に黨爭初期の性格をめぐって—」, 『史叢』, 4(1963)에 이르기까지 대략 10여편이 발표되었고, 이후에는 단행본 연구서적 가운데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 외에 독립된 논문은 찾기가 어렵다.

3) 托克托, 『宋史』(서울: 景仁文化社影印, 1979), 卷384, 葉衡傳, p. 11824 참조.

黨爭은 宋朝 자체내에서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黨爭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나아갔기때문에 그것이 당시의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도 어느 때보다 심각하였다. 사실 黨爭으로 집권 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王朝의 제반 정책도 바뀌고 있어 黨爭에 의해 宋의 政治社會가 움직여 나아갔다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다.

이들 몇가지 사실로도, 宋代史研究에서 黨爭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할 것인가 짐작이 간다. 本論에서는 먼저 黨爭이 예전과 달리 일찍부터 발생하여 王朝末期까지 계속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 宋代의 士大夫社會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사회요인을 몇가지 분석하겠다. 이러한 배경적 고찰 후에 黨爭의 실체와 성격에 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전개과정을 仁宗, 神宗, 哲宗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한 다음, 이어 黨爭의 구성원과 그 성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黨爭의 결과와 그것이 宋代史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黨爭의 발생배경

文治主義政策의 결과로 형성된 北宋代 士大夫社會는 그 발전과정상에서 고찰해 볼 때, 黨爭이 발생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黨爭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당시의 특수한 사회요인부터 분석하려고 한다.

宋代 黨爭의 발생에 관한 종래의 논의내용을 보면, 血緣, 地緣, 師弟, 姻戚關係나 保任制度를 통해 맺어진 舉主와 被舉人과의 관계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黨爭의 진행과정 중에서 이들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요인들은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들 요인이 宋代에 와서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黨爭이 다른 시대와 달

리 일찍부터 발생하여 장기간 동안 계속되어 나아가게 하였는가 하는 특수성까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宋代 黨爭의 발생배경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形成, 發展되어 나아간 士大夫社會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사회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士大夫社會 내부에 지역감정에 의한 대립의식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宋은 北中國을 점유하고 있던 後周의 판도를 이어받아 南方 제국을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따라서 宋初의 中央官僚社會는 華北官僚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거니와<sup>4)</sup>, 그들은 南中國을 자기들 보다 한 단계 낮은 지방으로 간주하여 南人輕視思想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江南官僚는 江外人, 南人 등으로 별칭되어 官界에서 늘 배척당하였다.<sup>5)</sup>

그런데 宋은 창업과 동시에 文治主義를 표방하고 科擧制度를 통하여 天下의 人才를 고루 등용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北宋中期에 이르면 이미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江南地方에서도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관료가 政界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江南人은 진보적인 사상을 지니고 計數에 뛰어났기 때문에 宋의 정치가 財政에 중심이 두어지면서 조정내에서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sup>6)</sup> 그러나 華北人의 江南人에 대한 차별의식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江南出身者가 등용되면서 두 지역출신 官僚 사이에 잠재하고 있던 대립의식은 政界에서 현실로 나타나 대립적인 세력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眞宗대의 王欽若이 “나는 王公(王公) 때문에 10年 늦게 宰相이 되었

4) 申採湜, 『宋代官僚制研究』(서울: 三英社, 1981), pp. 53~88 참조.

5) 이러한 상황은 趙彥衡, 『雲麓漫鈔』, 卷 4에 “藝祖御筆 用南人爲相設諫官 非吾子孫 石刻在東京內中”이라 한 기록이 전하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6) 宮崎市定, 『科擧』(大阪: 秋田屋, 1946), p. 238 참조.

다”라고 한 말과 같이, 그는 南人이란 이유로 宰相이 되는데 10年 세월을 더 허비해야 했다.<sup>7)</sup> 眞宗이 撫州 臨川人 晏殊에게 同進士出身을 주려할 때도 宰相 寇準은 그가 江外人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sup>8)</sup> 山東 益都縣人 王曾은 王欽若과 丁謂, 林特, 陳彭年, 劉承珪 등의 南人官僚를 五鬼라고 하여 姦邪險僞한 무리라고 仁宗에게 말하고 있다.<sup>9)</sup> 또 한 司馬光도 神宗이 陳升之를 재상에 임명하자, “閩人は 狡險하고 楚人は 輕易한데 지금 二相이 모두 閩人(曾公亮, 陳升之)이고 二參政이 모두 楚人(王安石, 唐介)이다. 필히 鄉黨의 士를 끌어 들여 朝廷을 가득 채울 것이다. 風俗이 어찌 다시 淳厚해 지겠는가”라고<sup>10)</sup> 하여 南人에 대한 차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당시 江南出身의 官僚가 政界에서 받아야 했을 불공정한 대우와 이로 인한 그들의 불만은 어떠했을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官僚社會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실보다 더 나은 정치이념을 군주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우수성이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眞宗代 王欽若이 封禪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나<sup>11)</sup>, 仁宗代 范仲淹 등 慶曆의 혁신가나 神宗代 王安石 등 新法主義者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士大夫社會가 발전해 감에 따라 華北出身 官僚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사회 내부에 새로운 江南出身 官僚의 세력이 증대되면서 그들 사이의 대립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sup>12)</sup>, 이것이 결과적으로 관료간에 黨派를 형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7) 『宋史』, 卷282, 王旦傳, p. 9548.

8) 위의 책, 卷311, 晏殊傳, p. 10195.

9) 위의 책, 卷283, 王欽若傳, p. 9564.

10) 『宋本皇朝編年綱目備要』, 下(臺北: 成文出版社, 1966), pp. 807~808.

11) 『宋史』, 卷282, 王旦傳, p. 9544.

12) 이미 眞宗代부터 王欽若과 丁謂를 중심으로 한 南人官僚와 王旦, 寇準, 王曾 등 北人官僚 사이에 政權爭奪戰 양상이 보이고 있다. 吉岡義信, 「北宋初期における南人官僚の進出一特に王欽若, 丁謂の場合」 『鈴鹿女子短期大學研究集』, 2(1955), p. 25 참조

수가 있다. 결국 宋代 士大夫社會는 지역관념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한 위에서 발전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 내부에는 黨爭의 발생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었다고 하겠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시대에 비해 宋代에는 皇帝權의 강화와 士大夫官僚의 신분보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도 같은 양면적인 두 요소가 매우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宋代에 皇帝의 독재권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의 군주독재란 皇帝가 文·武官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의미보다는 가능한 많은 국가기관을 황제의 직접 지휘아래 두어 군주 한 사람이 국가기능을 통할하는 官制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皇帝가 官僚를 임명할 때, 大臣의 반대를 받아도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따라서 皇帝가 원하는 人物이면 언제나 中央政界에 등용될 수 있었거니와, 이러한 예는 王朝 초기부터 末期에 이르기까지 자주 보이고 있다.<sup>13)</sup>

眞宗은 江南出身의 王欽若을 宰相에 임용하려다 당시 宰相으로 있던 王旦이 公議임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유보한 적이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는 王旦과 王欽若을 같이 재상직에 둘 경우 발생할 그들 사이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한 임시조처였고, 王旦이 물러나자 다른 관료들의 반대에는 관계없이 곧 宰相으로 등용시켰다. 仁宗代의 名臣으로 주목받는 范仲淹이나 歐陽脩 등도 당시 官僚社會에서는 받아들이기를 꺼리던 江南出身者였다. 이러한 자들이 중용된 것 또한 仁宗의 개인적인 의지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다.<sup>15)</sup> 神宗이 王安石을 宰相에 임용

13) 宋代 官制는 官과 職, 差遣으로 구분되는데 관료의 品階나 봉록과 관계있던 官은 年功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승진되었으나 실직을 나타내는 差遣이나 文學之選을 대우하는 職은 皇帝가 임의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결국 이러한 職과 差遣이 皇帝權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14) 『宋史』, 卷282, 王旦傳, p. 9548 참조.

15) 周藤吉之, 『宋代官僚制と大土地所有』 『社會構成史體系』, 第2部(東京: 評論社, 1950), pp. 18~19의 인용문 참조.

할 때에도 參知政事 唐介나 宰相 富弼, 韓琦 등 大臣의 반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皇帝의 의지대로 그를 기용하고 있다.<sup>16)</sup> 이상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皇帝權의 制度的인 強化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으리란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기존 官僚勢力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人物이 官界 중심부에 등용됨에 따라 그들 사이에는 반목과 대립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澶淵之盟의 功過나 封禪의 실시여부와 같은 문제에서 보이는 王欽若과 寇準, 王旦 사이의 반목이라든지<sup>17)</sup>, 洛陽遷都 문제에서 보이는 范仲淹과 呂夷簡사이의 불화<sup>18)</sup>, 新法을 둘러싸고 야기된 王安石과 司馬光 등의 대립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皇帝權은 관료간의 분쟁까지를 다스릴만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성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만일 皇帝가 기존 대신이 반대하는 人物을 등용할 수 없거나, 또는 官僚間의 불화를 잘 조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黨爭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制度的으로 보면, 宋代의 皇帝權은 기존세력이 반대하는 인물도 임의로 등용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었다. 다만 그것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국가기능을 통할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강화였고 皇帝가 실질적으로 官僚 개개인을 마음대로 부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관료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慶曆年間의 范仲淹이나 熙寧年間의 王安石이 大臣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皇帝에 의해 重用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등장으로 야기된 기존관료세력과의 마찰 역시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宋代 黨爭의 발단이 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

16) 『宋史』, 卷316, 唐介傳, pp. 10329~10330, 卷312, 韓琦傳, p. 10229, 卷313, 富弼傳, p. 10256 참조.

17) 위의 책, 卷281, 寇準傳, pp. 9531~9532, 卷282, 王旦傳, p. 9544.

18) 위의 책, 卷314, 范仲淹傳, p. 10269.

로 결과적으로는 制度的인 측면에서의 皇帝權強化가 宋代 士大夫社會 내부에 黨爭이 발생하고 가열화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제공해 주고 있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士大夫官僚의 신분보장과 그로 인한 그들의 권한 확보에 관하여 주목해 보겠다. 상기한 바대로 宋代 皇帝權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文治主義政策의 결과 宋王朝은 士大夫官僚를 존중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상당히 양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때문에 宋代에는 皇帝權의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료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권한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宋太祖가 讀書人을 宰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sup>19)</sup> 大臣·諫官을 살해하지 말라는 유훈을<sup>20)</sup> 자손에게 남기면서 그것은 北宋末期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었다. 그리하여 宋代 士大夫官僚는 완전히 官界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정치상의 과실이 있어도 다만 遠方에 좌천될 뿐 死刑을 당하지는 않았다. 哲宗代 章惇이 同文館의 獄을 일으키고 漢과 唐의 誅戮故事를 내세워 관계된 인물 모두를 주살할 것을 주장했을 때 哲宗이 大臣을 殺戮하지 말라는 祖宗의 遺制를 받들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sup>21)</sup> 이러한 위에 申探湜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宋代는 國政에 대한 言論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었다. 國政을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臣下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 皇帝가 결정하는 討論을 거치기 때문에 國政에 대한 批判은 자유로히 가할 수가 있었다.<sup>22)</sup> 이와 같이하여 宋代의 士大夫官僚는 歐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조정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거니와, 특히 諫官 직에 있는 관료의 경우를 보면 그 지위는 낮으나 권력은 재상과 동등하다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던 것이

19) 위의 책, 卷3, 太祖本紀—3, p. 50.

20) 王夫之, 『宋論』(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4), 卷1, pp. 5~6.

21) 『宋史』, 卷343, 許將傳, p. 10910, 卷471, 蔡元—1, 章惇傳, p. 13711 참조.

22) 申探湜, 앞의 책, p. 378.

다.<sup>23)</sup>

그러므로 官僚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결과, 그들 사이에 論爭이 격화되어 政界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의 정권담당층인 士大夫官僚가 신분을 보장받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가 있었고 의견이 다른 상대는 呂夷簡을 공격한 范仲淹과 같이<sup>24)</sup> 宰相까지도 배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장이 다른 官僚 사이에는 의견충돌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太祖 開寶 8年(975) 과거제도에 殿試가 확립된 이후 관료 개개인에게 天子의 門生이라는 의식이 싹트면서, 그들 사이에 天子를 대신해 天下의 책임을 떠맡는다고 하는 義氣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25)</sup> 이러한 士大夫的 自覺의 당연한 결과로 北宋中期에 이르면 文弱해진 宋王朝를 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미 眞宗代부터 王禹稱이나 楊億, 宋祁 등이, 그리고 仁宗代에는 田況, 張方平 등이 冗兵·冗官問題로 인한 재정개혁을 논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안이 미봉책만으로 그치게 되자 급기야는 范仲淹과 같은 慶曆의 革新家나 王安石 등 新法主義者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안이 제기되는 경우, 그로 인한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모든 개혁이 祖宗之法이라고 하는 전통주의에 얽매어 보수관료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宋代史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특히 宋代 士大夫官僚는 상기한 바와 같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개혁안은 다른 시대보다 더 격렬한 찬·반여론을 형성시킬 수 밖에 없었다.

23) 歐陽脩, 『歐陽文忠公集』(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67), 居士外集, 卷16, 上范司諫書 p. 42 참조.

24) 『宋史』, 卷314, 范仲淹傳, p. 10269.

25) 宮崎市定, 「宋代の士風」『アジア史研究』(京都:同朋舎, 1957), p. 158 참조.

그리하여 결국 내부적으로 분열이 싹트게 된 宋代 官僚社會는 상호 이해관계에 얽혀 대립적인 정치집단을 형성하고 서로 배척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宋代에 黨爭이 격심하게 된 까닭은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士大夫官僚의 신분보장과 권한확보가 관료간의 마찰을 가중시켜 黨爭이 발생하고 가열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北宋代 黨爭이 다른 시대와 달리 일찍부터 발생하여 王朝末期까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 특수한 사회요인을 몇가지 고찰해보았다.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宋代 士大夫社會가 形成, 發展되어 가면서 노출된 독특한 요인들, 즉 관료사회 내부에 지역감정에 의한 대립의식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는 것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皇帝權이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士大夫官僚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그들의 권한 또한 확보되었다는 것, 이들 제요인 속에 黨爭이 발생하고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까닭이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仁宗代 黨爭의 발생

宋代에 黨爭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仁宗 慶曆年間(1041~1048)을 전후하여 范仲淹을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과 呂夷簡, 夏竦 등 보수세력 사이에 각각의 黨派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 특히 慶曆 3年(1043) 仁宗이 天下의 弊事를 바로 잡기 위해 諫官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관료를 대거 중용하면서<sup>26)</sup> 黨爭은 한층 발전하였다.

물론 이때의 黨爭은 혁신세력이 보수세력의 반발을 누르지 못하고 물러남으로써 짧은 기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기간이 짧았음에도 당

26) 李燾, 『續資治通鑑長編』(臺北:世界書局, 1983), 卷 140, 仁宗慶曆 3年 3月 癸巳條, p. 1412(이하 『長編』이라 약함).

시에 등장한 革新主義 정신이 이후의 士大夫官僚에게 상당한 정신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바이거나, 당시의 실패를 경험한 위에서 나타난 후대 관료의 주장 중에는 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안도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南宋代 呂祖謙이 王安石의 新法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촉진시킨 것으로 范仲淹改革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sup>27)</sup> 그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仁宗代 黨爭의 결과에 의해 宋代 政治社會는 발전과정 상에 하나의 轉機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면에서 이 때의 黨爭이 宋代史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仁宗代 黨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하여 분석해 보겠다.

먼저 黨爭이 어떠한 일을 발단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자.

처음에 (范)仲淹이 呂夷簡을 거역하여 수년동안 (地方으로) 쫓겨나자 士大夫들은 두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세워 서로(상대방이) 朋黨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天子는(仁宗)……呂夷簡이 물러나게 되자 仲淹을 召還하여 믿고 다스리도록 하였는데……朋黨의 論이 심하여져 그치게 할 수가 없었다.<sup>28)</sup>

관료가 皇帝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고 횡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朋黨을 형성하는 일은 中國에서는 오래 전부터 금지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宋代 官僚 사이에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방이 朋黨을 形成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기풍이 유행하였다. 이 현상은 宋初와 末期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sup>29)</sup> 위의 기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잘

27) James, T.C. Liu., "An early Sung Reformer: Fan Chung-Yen," edited by John K. Fairbank, *Chinese Thought & Instit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 109 참조.

28) 『長編』, 卷150, 仁宗 慶曆 4年 6月 壬子條, p. 1517. 朱熹, 『宋名臣言行錄五集』(臺北: 文海出版社, 年度未詳), 前集, 卷7, 參政范文正公仲淹, pp. 232~233에도 范仲淹이 呂夷簡에 의해 貶斥되면서 많은 士大夫가 제각기 二公의 옳고 그름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29) 『宋史』, 卷284, 宋庠傳, p. 9591, 卷286, 王益柔傳, p. 9634, 卷290, 曹利用傳, pp.

나타나 있다. 范仲淹이 당시 執政의 직에 있던 呂夷簡에 의해 地方官으로 좌천되면서 많은 士大夫가 范을 지지하는 편과 呂를 지지하는 편, 즉 양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공격수단으로서 서로 상대방이 朋黨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이 朋黨의 論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때 우리는 이 때부터 관료들 사이에 黨爭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 외에 仁宗代 官僚가 黨爭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나, 또는 朋黨의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관료들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내용을 보면, 百官圖를 작성한 范仲淹의 경우 呂夷簡을 중심으로 한 세력집단 전부가 공격 대상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呂夷簡을 지지하는 인물들 또한 殿中侍御史 韓瀆이 百官의 朋黨形成을 경계한다는 명목하에 范의 朋黨으로 지목받은 자의 명단을 朝堂에 게시하도록 주청하고 있는 바와 같이 范仲淹을 중심으로 한 세력 전부를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전과 달리 仁宗代 관료들 사이에는 黨派의 성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니와, 仁宗代에 들어오면서 百官의 朋黨을 경계하는 조치가 수차 내려지고 있는 것에서 보아도<sup>30)</sup> 당시의 관료간의 政爭은 黨爭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sup>31)</sup>

宋代 官僚社會는 范仲淹과 呂夷簡 이전부터 이미 대립현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眞宗代 澶淵之盟의 功過나 封禪의 실시여부와 같은 문제에서 보이는 王欽若과 寇準, 王旦 사이의 반목은 그 대표적인 예이

9706~9707, 卷310, 李迪傳, p.10174, 卷357, 程振傳, 卷435, 儒林 5, 胡安國傳 등 참조.

30) 위의 책, 卷10, 仁宗本紀 2, 寶元元年 冬10月 丙寅條, 卷11, 仁宗本紀 3, 慶曆 4年 11月 己巳條 등 참조.

31) 金毓黻, 『宋遼金史』(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2), p.40에 보면 이 仁宗代의 政爭을 黨爭의 起因으로 파악하고 黨爭 그 자체로는 보지 않았으나, 黨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다. 그러나 이때의 대립은 華北과 江南出身 官僚 사이의 지역감정에 의한 대립의식이 몇몇 관료에 의해 政界에서 표면화한 것에 불과하였을뿐 그들이 일정한 세력의 朋黨을 형성하여 黨爭을 일으키게 될 정도의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仁宗代에 들어오면서 江南出身 官僚의 중앙정계 진출이 상당히 광범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華北과 江南出身 관료간에 자리잡고 있던 지역감정에 의한 대립의식은 더욱 심화되어져, 그것이 范仲淹과 呂夷簡을 중심으로 관료들 사이에 朋黨을 형성시키도록 작용하게 됨으로써 宋代의 黨爭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范과 呂 사이의 불화가 政界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明道年間(1032~1033) 기존 정치질서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呂夷簡에 의해 郭后의 폐위문제가 제기된 후, 臺諫으로 있던 孔道輔, 范仲淹 등 신흥세력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부터였다.<sup>32)</sup> 이 일로 范仲淹은 知睦州로 좌천되었다가 景祐元年(1034) 知開封府로 옮겨 앉았는데, 이후 百官圖를 올려 呂의 편파적인 인사처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洛陽遷都 문제에 반대하는 呂를 前漢 멸망의 주범인 張禹에 비유하는 등 그들 사이의 불화가 더욱 심하여졌다. 이러한 중에 呂夷簡은 范仲淹이 越職하여 君臣을 이간하며 朋黨을 형성하고 있다고 몰아세움으로써 다시 知饒州로 좌천시켰다.<sup>33)</sup> 위에서 인용한 『長編』의 기록은 바로 이 사건 후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서, 范仲淹이 知饒州로 좌천된 이 사건은 仁宗代 黨爭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sup>34)</sup>

이상의 사실로 볼 때, 仁宗代의 黨爭은 어떤 확고한 정치이념으로 형성된 정치적 주장에 의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기존관료 세력과 신흥관

32) 陳邦瞻, 『宋史紀事本末』(臺北: 三民書局, 1973), 卷25, 郭后之廢, pp. 153~154.

33) 『長編』, 卷118, 仁宗 景祐 3年 5月 丙戌條, p. 1133 참조.

34) 『宋史』, 卷319, 歐陽脩傳, p. 10376에 “初范仲淹之貶饒州也 脩與尹洙余靖皆以直仲淹見逐 且之曰黨人 自是朋黨之論起”라 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료세력간에 이전부터 싸더왔던 대립감정이 范仲淹의 좌천을 계기로 朋黨形成이란 사태로까지 발전함으로써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仁宗代의 黨爭이 명확하게 정치이념의 대립이란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慶曆 3年 이후의 일로 보인다.

한편 范仲淹을 중심으로 한 朋黨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곧 그를 지지하는 인물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黨爭이 처음에는 范仲淹의 黜陟과 관계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范이 좌천된 후 韓瀆의 주청에 의해 范의 朋黨이 朝堂에 게시되면서 余靖이나 尹洙, 歐陽脩 등은 范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들과 좌천되자 蔡襄은 “四賢—不肖詩”를 지어 이들을 칭찬하고 范의 좌천을 당연시 여기던 司諫 高若納를 비방하고 나서기도 했다.<sup>35)</sup> 이외에 “襄이 四賢—不肖詩를 짓자 (西京의 士大夫들이) 다투어 그것을 傳寫하였다”고<sup>36)</sup> 한 기록이나 “(范)仲淹이 이미 떠나자 (그를) 천거하는 士大夫들의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라고<sup>37)</sup>... 한 내용에서 볼 때도 초기의 黨爭이 范의 좌천과 관계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좌천되었던 范仲淹이 얼마 후 中央政界에 복귀되면서 다시 이것을 계기로 黨爭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慶曆 3年 3月 仁宗이 政治改革의 필요성을 크게 깨달아 諫官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관료들을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范仲淹과 그 세력의<sup>38)</sup> 진출은 활발해지게 되었는데<sup>39)</sup>, 國子監直講으로 있던 石介는 이러한 상황을 仁宗이 “退姦進賢”한다고 찬양하면서 范仲淹을 중심으로한

35) 위의 책, 卷320, 蔡襄傳, p. 10397 참조.

36) 위의 책, 같은 페이지. 曾先之, 『十八史略』, 卷6에 의하면, 이 詩로 인해 낙양의 풍이 많이 폭동되었다고 한다.

37) 『宋史』, 卷314, 范仲淹傳, p. 10269.

38) 范仲淹을 지지하는 관료집단을 편의상 “范仲淹 세력”이란 용어로 사용하였다.

39) 이 때 呂夷簡은 이미 병으로 政界에서 물러났고 章得象, 晏殊가 제상으로 되었으며, 樞密使의 직에도 呂夷簡의 천거를 받았던 夏竦을 대신하여 杜衍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賈昌朝는 參知政事, 范仲淹, 韓琦, 富弼은 樞密副使, 王素, 歐陽脩, 余靖, 蔡襄은 諫官이 되었다.

人物을 衆賢, 夏竦을 大姦에 비유한 “慶曆聖德詩”를 지었다.<sup>40)</sup> 그리고 夏竦은 杜衍, 范仲淹, 歐陽脩 등을 黨人이라 공격하고 나서게 되었거니와, 이로써 볼 때 范仲淹의 중앙정계진출을 계기로 또 黨爭이 격화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歐陽脩의 유명한 “朋黨論”은 이 당시의 黨爭의 와중에서 夏竦의 공격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朋黨論”에서 歐陽脩는 그때까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던 朋黨의 의미를 君子黨과 小人黨으로 구분해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함으로써 仁宗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sup>41)</sup> 范仲淹도 慶曆 4年 仁宗에게 君子黨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朋黨論은 呂夷簡, 夏竦 등이 그동안 朋黨을 형성하고 있다고 范仲淹 세력을 공격하여 온 것에 대한 방어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상대를 小人, 스스로를 君子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朋黨論으로 인해 이제까지 부정시되어 오기만 하던 朋黨의 형성이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게 되면서 이후의 黨爭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즉 北宋末에 다시 나타나게 되기는 했지만 神宗代의 기간까지는 전과 같이 朋黨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고 朋黨의 성격을 분석하여 상대를 소인집단이라 공격하는 기풍이 새로이 조성된 것이다. 神宗代 이후 新法·舊法勢力間의 다툼은 바로 이러한 위에서 전개되었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면에서 范과 歐 등이 제시한 “朋黨論”은 이후의 宋代 黨爭史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范仲淹의 黜陟과 관련을 맺고 진행되던 仁宗代 초기의 黨爭은 慶曆 3年 8月 仁宗이 范仲淹을 參知政事로 임명하고 그에게 世務에 대한 上疏

40) 『長編』, 卷140, 仁宗 慶曆 3年 夏4月條, p. 1416. 이 詩의 내용은 『宋史』, 卷432, 儒林—2, 石介傳, p. 12834 참조.

41) 『宋史』, 卷319, 歐陽脩傳, p. 10376의 “朋黨論”의 내용 참조.

42) 『長編』, 卷148, 慶曆 4年 夏4月 戊戌條, p. 1495. 『宋史』, 卷311, 張士孫傳, p. 10218에도 君子와 小人の 朋黨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를 올리도록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范은 富弼과 함께 明黜陟, 抑僥倖, 精貢舉, 擇長官, 均公田, 厚農桑, 修武備, 推恩信, 重命令, 減徭役 등 개혁되어야 할 10항목을 건의하였는데, 이들은 支配層 내부의 綱紀肅正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제도의 재정비라는 성격이 강하였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관료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교,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이후의 黨爭은 개혁과 반개혁이란 정치적 주장에 의해 형성된 정치이념의 대립이란 성격을 한층 강하게 지니게 된 것이다.<sup>43)</sup>

정치이념의 대립이란 성격으로 변하면서 비록 기간이 짧기는 하였지만 黨爭은 이후 더욱 격화되었고 그 양상 또한 복잡하게 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에 입각한 新政이 실시되면서 蔭補의 혜택이 줄어들고 磨勘法이 엄밀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특권층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은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기존정치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상당수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官僚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였다. 그 동안 范을 지지하여 왔던 官僚들도 新政에 어느정도 동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가 많기는 하였으나<sup>44)</sup>, 范仲淹, 富弼 등이 그 개혁이념을 강화해 나가면서부터는 張方平이나 王拱辰 등과 같이<sup>45)</sup> 태도를 바꾸어 新政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까지 출현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개혁세력과 개혁반대세력 사이의 다툼은 날로 격화되어 갔고, 新政에 의한 일의 진척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范仲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夏竦은 石介의 上奏文 중 富弼에 대한 기록을 僞作하여 모함하기까지

43) 黨爭의 측면은 아니지만, 范仲淹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의 관료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한 최근의 연구논문으로는 近藤一成, 「北宋「慶曆の治」小考」『史滴』, 5(1984), pp. 39~56을 들 수 있다.

44) 范仲淹의 개혁안과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富弼의 世務 10條와 安邊 13策 및 韓琦의 先務 7事와 教弊 8事 외에, 『長編』, 卷147, 仁宗 慶曆 4年 3月 甲戌條, p. 1488에는 宋祁, 王拱辰, 張方平, 歐陽脩, 梅摯, 曾公亮, 王洙, 孫甫, 劉湜 등이 合奏하여 范의 興學校와 先論策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도 보이고 있다.

45) 『宋史紀事本末』, 卷29, 慶曆黨議, p. 198 참조.

하였는데, 이러한 사태를 기대하지 않았던 范仲淹은 정국을 바로잡으려는 의도하에 慶曆 4年 6月 스스로 宣撫陝西河東使로서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sup>46)</sup>

그러나 范仲淹이 이와 같이 보수세력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出使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비방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仁宗까지도 개혁안에 의혹을 품게되었기 때문에 范은 다시 參知政事를 파해줄 것을 상소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 范과 富弼 등을 파해 天下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右正言 錢明逸의 상소가 있자 仁宗은 곧 范仲淹과 富弼의 직책을 파하고 재상으로 있던 杜衍도 지방관으로 좌천시켰다.<sup>47)</sup> 이 때가 范이 10事를 건의한지 1년 5개월이 되는 무렵이며, 이후 정국은 완전히 보수세력의 손에 넘어갔고 范仲淹 세력의 개혁이념은 그 빛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개혁세력의 제거에 힘쓰고 있던 王拱辰이 내가 그들을 一網打盡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거니와<sup>48)</sup>, 이후 韓琦와 歐陽脩 등이 변론의 상소를 내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지방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계속하여 참소하는 자는 石介가 亂을 모의하고 있고 富弼이 一路의 兵으로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내세우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지방관으로만 전전하던 范仲淹은 皇祐 4年(1052) 徐州에서 卒하였다.

慶曆의 新政은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폐지되었고 范仲淹 死後 黨派를 조장할만한 다른 개혁안 또한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黨爭은 여기에서 종식되었다. 蘇軾이 지적하고 있는 바 “일찌기 慶曆年間에 학교를 세웠으나 今日(熙寧 2年)에 이르러서는 空名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은<sup>49)</sup> 개혁세력의 패배로 끝난 仁宗代 黨爭의 결과를 보여

46) 『長編』, 卷 150, 仁宗 慶曆 4年 6月 壬子條, p. 1517 참조.

47) 위의 책, 卷150, 仁宗 慶曆 5年 春正月 乙酉條, p. 1557.

48) 『宋史紀事本末』, 卷29, 慶曆黨議, p. 198.

49) 『宋史』, 卷338, 蘇軾傳, p. 10803.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상으로 仁宗代 黨爭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 때의 黨爭은 范仲淹, 富弼, 韓琦, 歐陽脩 등 일단의 혁신정신을 소유한 관료가 새롭게 등장하여 여러가지 폐단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시도하면서 현실속에 안주하고 있던 보수적인 기존관료 세력과의 사이에 대립적인 黨派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하였고, 심화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시의 黨爭이 范仲淹과 呂夷簡 사이의 불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그 불화는 양자간의 개인적인 문제에서가 아닌 현실 정치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단순한 감정대립보다는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에서 黨爭의 성격을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仁宗이 范仲淹에게 呂夷簡에 대한 감정을 풀도록 말하였을 때, 그가 “臣의 鄉論은 대개가 國家事이고 夷簡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다”라고<sup>50)</sup> 한 말이나 후에 西北 변경으로 떠날 때, 鄜州를 통과하면서 이미 늙어 그 곳에 한거하고 있던 呂夷簡을 방문하고 있는 것 등은<sup>51)</sup>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국가정치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들 사이의 정치적 의견의 불일치, 즉 정치이념의 차이가 黨爭의 주요내용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歐陽脩가 呂夷簡과 政界에서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그의 아들 呂公著와는 학문적으로 밀접한 講友關係를 맺고 있거나<sup>52)</sup>, 또는 高若納에 의해 좌천되었을 때 陝西地方에 있던 范仲淹이 절으로 부르러 하자 “물러나는 것은 같이 해도 나아가는 것은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sup>53)</sup>하여 사양하였다는 내용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사로운 목적에 의한 관료간의 결속이나 감정대립은 당시의 黨爭에서는 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50) 위의 책, 卷314, 范仲淹傳, p. 10270.

51) 『宋史紀事本末』, 卷29, 慶曆黨議, p. 197 참조.

52) 『宋史』, 卷336, 呂公著傳, p. 10772.

53) 위의 책, 卷319, 歐陽脩傳, p. 10376.

물론 仁宗代 黨爭이 개인적인, 지방적인, 사회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어떤 편견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연구 중에는 仁宗代의 黨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서 師弟關係나 姻戚關係, 地緣關係 및 官僚와 非官僚家系出身간의 사회적인 결속관계 등을 분석해 놓은 것도 있다.<sup>54)</sup> 이들 제요인이 黨爭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 黨派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역시 기존에 대한 혁신과 이에 대한 반대를 둘러싸고 성립된 정치이념을<sup>55)</sup> 먼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이념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한 제요인이 집중적으로 작용해 관료간의 결속력을 더욱 증가시키도록 할 수가 있었고 이것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도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였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仁宗代 黨爭의 성격은 자연히 정치이념의 대결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당시의 관료들이 공통의 정치이념에 의해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예는 歐陽脩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潭州 長沙人 胥偃은 歐陽脩의 스승이자 丈人이었는데, 그가 范仲淹을 수차 규탄하면서 이 일로 范을 지지하던 歐陽脩는 그와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sup>56)</sup> 이러한 내용은 역시 仁宗代 黨派의 형성에는 師弟關係나 地緣, 姻戚關係 등의 요인보다는 공통의 정치이념에 의한 결속력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시 새로이 등장하여 정치개혁의 의욕을 불태우던 개혁세력이 쉽게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

54) James, T.C. Liu., 앞의 논문, pp. 126~128.

55)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관료들이 서로 결합하여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와 이념을 같이하는 자를 보호하려 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같은 세력이라 해도 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용은 구체적인 政策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완전히 통일된 것만은 아니었다. 때문에 黨派의 형성요인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政策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이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56) 『宋史』, 卷294, 胥偃傳, p. 9818.

시 黨爭은 개혁세력과 개혁반대세력이 그들의 정치이념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대립한 것이지만, 각 세력 내부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차이는 항상 존재하였다. 특히 개혁세력의 경우 私人的 결속력은 강하였다고 하겠으나, 의욕이 강한 만큼 國政에 임하여서는 그들 간에 이러한 의견대립이 더욱 심하여 “一人一黨”이란 말도 나올 정도였다.<sup>57)</sup> 그리하여 慶曆의 改革勢力이 그들의 정치이념을 위해 힘을 합하였다고는 하지만 조직적인 기구나 배후세력을 확보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까지 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단지 명분과 의욕만을 내세워 개혁을 호소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세력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장벽은 그들이 뚫고 나가기에 강하고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慶曆의 新政이 당시 사회에 깊이있게 파고들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사회상황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지만 范仲淹 등의 革新主義 정신은 이후에도 士大夫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宋史』 蘇軾傳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쉽게 살필 수가 있다.<sup>58)</sup>

蘇軾이 童子시절이었을 때부터 士大夫들 사이에는 石介의 “慶曆聖德詩”가 전하여 蜀中에 이른 것이 있었다. 軾은 詩中에서 말하는 바의 韓, 富, 杜, 范의 諸賢을 歷舉하여 그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대답하자, 곧 말하기를 “이들 諸人을 올바르게 알고자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蜀, 즉 四川地方이 京師인 開封에서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지역 士大夫들에게 미친 영향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范仲淹의 “士는 당연히 天下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天下의 즐거움을 뒤에 즐거워 해야 한다”라고 한 말이 士大夫階層의 심층 깊숙히 새겨진 정치적 신조의 한 조목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미

57) 吉田清治, 앞의 논문, pp. 306~307 참조.

58) 『宋史』, 卷338, 蘇軾傳, p. 10819.

지적되고 있는 바 이거니와<sup>59)</sup>, 范仲淹의 실패를 반성한 위에서 형성된 후대 관료의 주장 중에는 范仲淹 당시보다 더욱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이미 嘉祐 3年(1058) 仁宗에게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萬言書”를 올리고 있는 王安石도 范仲淹을 만인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어<sup>60)</sup>, 그가 范仲淹에게서 정신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 IV. 神宗代 黨爭의 재개

范仲淹의 개혁안이 좌절되고 黨爭이 종식된 이후에도 관료간의 분열 상태는 계속되었다. 仁宗의 뒤를 이어 英宗이 즉위한 후 英宗의 親父인 濮王의 典禮 문제를 둘러싸고 司馬光, 王珪 등과 歐陽脩, 韓琦 등의 관료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濮議는 관료사회 내부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sup>61)</sup>

이러한 상태가 더욱 발전하여 宋代 社會가 다시 黨爭의 와중으로 빠지게 된 것은 神宗代에 들어와 王安石이 新法을 통한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司馬光, 呂誨, 范純仁 등 舊法을<sup>62)</sup> 수호하려는 官僚와의 사이에 또 다른 黨派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王安石의 新法은 范仲淹 당시보다 그 성격이 더욱 급진적이고 투철하게 변하였으며 반대여론도 그

59) James, T.C. Liu., 앞의 논문, p.111.

60) 范仲淹, 『襄賢集』, 卷 1과 葉夢得, 『避暑錄話』, 卷 1에는 王安石이 范仲淹을 모든 사람의 스승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도 보이고 있다. James, T.C. Liu., 앞의 논문, p. 109 참조.

61)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논의 중에서는 濮議를 黨爭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당시 관료들 사이의 불화는 官制상의 단순한 이념논쟁으로 그쳤고 朋黨形成의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黨爭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金毓黻, 앞의 책, p.40에서 濮議를 黨爭 그 자체로 보지 않은 것은 옳은 지적이라 본다.

62) 舊法은 王安石이 내세운 新法에 대칭되는 말로서 宋初이래의 기존법, 즉 祖宗之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만큼 드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仁宗代와는 달리 新法·舊法官僚間の 黨爭은 北宋末期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격렬하게 지속되어 나아갔다. 이러한 면에서 新法·舊法勢力을 형성시킨 神宗代의 黨爭은 宋代 社會를 장기적인 黨爭의 와중으로 몰아넣은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宋代 黨爭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神宗代는 宋代史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시기이다. 王安石의 新法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정치·사회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黨爭의 측면에서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논문도 이미 몇편이 발표되었다.<sup>63)</sup> 여기에서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면서 神宗代 黨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王安石이 司馬光을 비롯한 舊法官僚와 정계에서 대립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은 熙寧元年(1068) 그가 翰林學士兼侍講으로 京師에 머무르게 된 이후 정치적 발언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의 주장 내용 중 舊法官僚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차이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神宗代에는 재정난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였기 때문에 皇帝는 물론 대부분의 관료들도 현실정치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다만 그 개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관료간에는 심한 의견차이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러한 차이는 國用不足의 時政을 논하고 있는 王安石과 司馬光의 다음과 같은 주장 중에 잘 나타나있다.

執政이 河朔의 旱傷으로 國用이 不足하니 南郊에서 金帛을 하사하지 말도록 청하여 學士에게 의논토록 조칙을 내렸다. 光이 말하길 “救災와 節用은 貴近

63) 吉田清治, 「黨爭史上より觀たる熙寧年間の洛陽と其風氣」『文化』, 1-12(1934), pp. 147 5~1496 및 「黨爭史上より見たる王安石」『大阪府立大學紀要』, 7(1959), pp. 55~60, 荒木敏一, 「宋代に於ける黨爭の一環としての制科の改廢問題」『東洋史研究』, 15-2(1956), pp. 28~42; 片野裕子, 앞의 논문, 『史艸』, 4(1963), pp. 46~53 등 참조.

에서부터 시작함이 마땅함으로 허락해야 한다”하니 安石은 “……國用の 不足은 當世의 急務가 아니다. 不足한 이유는 理財에 뛰어난 자를 얻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光이 말하길 “理財에 뛰어난 자는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함에 불과하다”하니 安石은 “그렇지 않다. 理財에 뛰어난 자는 조세를 늘리지 않고도 國用을足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光이 말하길 “天下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는가……”, ……安石이 정권을 쥐고 新法을 행하니 光은 반대하여 그 利害를 상소하였다.<sup>64)</sup>

이로써 보면 司馬光은 재정의 어려움을 天子를 비롯한 모든 관료가 근검, 절약하여 타개해야 한다는 현실체제 내에서의 개선책을 주장하고있으나, 王安石은 기존 현실을 재정비해야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보고<sup>65)</sup> 理財에 뛰어난 자를 채용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차이는 王安石이 參知政事에 임명된 후 舊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陳升之, 呂惠卿, 曾布 등과 新法의 실시에 힘쓰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皇帝는 물론 당시 많은 士大夫가 王安石을 환영하고 있었고 新法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기는 하나<sup>66)</sup>, 문자 그대로 新法은 舊法과 대치되는 여러가지 급진적인 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sup>67)</sup> 조정내의 훈구대신은 대개가 이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sup>68)</sup> 王安石新法의 선구적인 형태로서 范仲淹의 개혁안이 지적되기

64) 『宋史』, 卷336, 司馬光傳, pp. 10763~10764.

65) 王安石의 이러한 생각은 『宋名臣言行錄五集』, 後集, 卷6, 王安石條, p. 567의 “上問然則卿所施設 以何爲先 公曰 變風俗立法度 最方今所急也”라 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66)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 262의 “王安石既執政 士大夫多以爲得人”이라 한 기록이나 御史中丞 呂誥가 王安石을 탄핵하려할 때 司馬光이 말하고 있는 내용, 즉 “光愕然曰 衆喜得人 柰何論之”라 한 기록에서 잘 알 수가 있다.

67) 王安石 新法의 급진적인 성격은 일반적으로 종래 대다수의 士大夫가 자율적 민간질서를 지지하고 있는데 비해 그는 集權官僚制에 의한 국가의 통제질서를 강화하려고 있었던 것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長編』, 卷221, 神宗 熙寧 4年 3月 戊子條 pp. 2337~2338의 神宗과 舊法官僚 文彥博 사이의 대화내용, 즉 “彥博又言 祖宗法制具在不須更張以失人心 上曰 更張法制 於士大夫誠多不悅 然於百姓何所不便 彥博曰 爲與士大夫治天下 非與百姓治天下也”라 한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68)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 261에 “時爭新法 廟堂諸大臣 議論多不協”이라 하였다.

도 하는데, 新法의 급진적인 성격은 당시까지 생존하고 있던 韓琦, 富弼, 歐陽脩를 비롯한 慶曆年間에 范仲淹과 함께 改革을 주장하였던 대신들도 反新法의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 정도였다.<sup>69)</sup> 사실 仁宗代의 范仲淹勢力과 新法·舊法과를 연결시켜 보면, 徽宗代 蔡京이 舊法官僚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元祐黨籍碑에 范純仁, 范純禮, 范純粹 등 范仲淹의 아들까지 포함될 정도로 范仲淹勢力은 新法보다 舊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sup>70)</sup>

여하튼, 이와 같이하여 정치사회 내부에는 新法을 지지하는 세력과 舊法을 수호하려는 양대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대립은 新法이 神宗의 강한 지지하에 실행단계에 옮겨지면서 점점 더 격렬하여져<sup>71)</sup> 결국 宋代 社會는 다시 黨爭의 와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新法勢力은 舊法을 “流俗”이라 하고 舊法勢力은 新法을 “亂常”이라 하여 서로 반박하였는데, 熙寧 4年 監察御史 劉摯이 이러한 기풍이 퍼지면 漢·唐의 黨禍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sup>72)</sup>, 新法·舊法勢力間의 政爭은 熙寧 4年 경 이미 상소문을 올려 염려할 정도로 黨爭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 神宗代의 黨爭은 仁宗代와 달리 처음부터 정치이념의 대립이란 성격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熙寧 3年 王安石이 新法에 반대하는 孔文仲을 制科에서 黜落시켰을 때 많은 관료가 孔文仲을 옹호하는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 그와 밀접한 교유관계가 있거나 정치적 견해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 보다 오히려 王安石의 新法 자체에 반대의 상

69) 近藤一成, 앞의 논문, p. 40 참조.

70) 『國粹學報』, 6-8(1910), 史篇, 元祐黨人碑, pp. 4157~4162 참조.

71) 이러한 官僚間의 대립현상은 『宋名臣言行錄五集』, 後集, 卷8, 呂公著條, p. 633의 상주문이나 『宋史』, 卷332, 勝元發傳, p. 10675의 新法 반대상소 내용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72)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 p. 280 및 『宋史』, 卷340, 劉摯傳, p. 10850.

주를 한 孔文仲의 입장을 지지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도<sup>73)</sup> 그러한 사실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神宗代 新法과 舊法勢力 사이의 다툼에서는 新法勢力이 전 기간에 걸쳐 장기간동안 政界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仁宗代 范仲淹勢力과 달리 이들이 오랜 기간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范仲淹이 仁宗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데 반해 王安石은 神宗에게서 강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으나<sup>74)</sup>, 이 외에도 仁宗代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의욕에 비해 활동역량이 부족하였던 반면 新法勢力은 개혁의지를 수행해 나갈 충분한 역량과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熙寧 2年 2月 王安石이 參政에 임용되면서 곧바로 知樞密院 陳升之와 함께 神宗을 움직여 특별히 天子에 직속하는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고 新法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직접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나, 4월에 劉彝, 謝卿材, 侯叔獻, 程顥, 盧乘, 王汝翼, 曾伉, 王廣廉 등 8人을 諸路에 보내 農田水利, 賦役 등을 감찰하도록 한 것<sup>75)</sup>, 그리고 그 해 11月 陳升之가 宰相이 되면서 制置三司條例司에서 파해줄 것을 청하자 韓絳을 制置三司條例司로 하여 그와 新法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는데, 이 때, 諸路에 提舉官 41人을 파견하여 靑苗, 免役, 農田水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것 등은<sup>76)</sup> 新法이 실시되기까지 용의 주도한 배후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 하에서 新法은 전국에 확대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舊法官僚를 더욱 자극하여 神宗 초에 黨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73) 片野裕子, 앞의 논문, pp. 47~48 참조.

74) 吳泰, 「熙寧·元豐新法散論」『宋遼金史論叢』, 1(1985), pp. 19~45는 신법실시에서 神宗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인 글이라 하겠다.

75)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 261.

76) 위의 책, 같은條, p. 268.

提舉官 중에는 功名에 급급한 나머지 新法을 무리하게 강행시킴으로써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한 舊法官僚의 반발 또한 심하였는데, 그들은 新法이 편하다는 말이 조정에 알려지는 것조차 금지하려 할 정도였다. 당시의 상황은 熙寧 3年 4月 孫覺의 추천에 의해 京師로 온 秀州判官 李定이 諫官 李常을 방문하여 地方에서의 靑苗法 실시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때, 백성들은 그것을 편히여겨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자 李常은 온 조정이 이 일을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그러한 말을 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77)</sup> 당시 舊法官僚의 新法에 대한 비난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祖宗의 法度を 바꾸어 小民과 利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新法의 골자인 富國強兵策이 法家的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된 공격목표로 되고 있었다.<sup>78)</sup> 舊法官僚의 계속적인 반대는 熙寧 3年 5月 神宗으로 하여금 制置三司條例司를 해체하도록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舊法官僚의 반대 속에서도 新法 실시를 위한 王安石의 집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李定을 神宗에게 천거하여 결국 靑苗法이 편하다고 하는 지방의 의론을 전하게 하였는데, 이 일이 있는 이후로 神宗도 新法을 반대하는 말은 듣지 않게 되었으며<sup>79)</sup>, 뿐만 아니라 후에 熙寧三舍人이라 불리게 된 宋敏求, 蘇頌, 李大臨 등 李定을 비난한 자들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新法에 반대하는 人物을 연이어 파직시키기까지 하였다.<sup>80)</sup> 制置三司條例司의 일도 王安石의 뜻에 따라 中書로 옮기고 靑苗, 免役, 農田水利의 법은 司農寺에서 다루도록 했는데 이미 新法官僚인 韓絳이 中書에 있었고 呂惠卿은 判司農

77) 『宋史』, 卷329, 李定傳, p. 10601 및 『長編』, 卷210, 熙寧 3年 夏4月, 己卯條, p. 2232 참조.

78) 『宋史』, 卷314, 范純仁傳, pp. 10283~10284, 卷321, 陳襄傳, p. 10420, 卷347, 張舜民傳, p. 11005 등 참조.

79) 註) 77과 同.

80)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 272.

寺로 있었기 때문에 新法의 제반 정책은 그대로 수행될 수가 있었다.<sup>81)</sup>

王安石이 宰相으로 있던 熙寧 3年 12月에서 熙寧 9年 10月 사이는 新法政治의 명실상부한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舊法勢力의 중심 人物들은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대부분이 中央政界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黨爭도 잠잠하여졌고, 王安石을 비롯한 韓絳, 呂惠卿, 曾布 등 新法官僚는 정치의 중심부를 차지하여 신법추진에 전념할 수 있었다. 王安石은 주로 젊은 관료들을 기용하여 新法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었으며<sup>82)</sup>, 이들 사이에는 司馬光도 감탄할 정도로 상당히 긴밀한 人脈關係가 형성되어 있었다.<sup>83)</sup> 新法 실시를 위한 王安石의 치밀성은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던 그의 黨 1~2人을 항상 經筵에 배치하려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84)</sup>

그러나 熙寧 6年 7月부터 7年 4月까지 중국이 한발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太皇太后와 馮京 등 舊法系 인물의 반발이 다시 심하여지게 되었는데, 이 때 鄭俠은 “流民圖”까지 작성하여 바치면서 王安石을 파직하면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上書도 하였다.<sup>85)</sup> 결국 불안을 느끼게 된 王安石은 請外하여 知江寧府로서 地方으로 나아갈수 밖에 없었지만, 이 때에도 그는 자신을 대신해 韓絳을 同平章事(宰相), 呂惠卿를 參知政事로 임용되도록 하여 新法은 계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熙寧 8年 春正月 鄭俠이 다시 “正直君子邪曲小人事業圖”라는 표를 만들어 新法을 비난하고 馮京을 재상에 천거하기도 했으나 지방으로 좌천되고 그 해 2月 王安石은 韓絳의 청에 의해 재상으로 복귀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sup>86)</sup>

81) 熙寧 3年 9月에는 呂惠卿이 父喪을 당해 물러나고 曾布가 判司農寺로서 新法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위의 책, 같은 條, p. 273.

82) 『宋史』, 卷321, 論贊, p. 10426 및 卷327, 王安石傳, p. 10551 참조.

83) 이러한 사실은 위의 책, 卷353, 龔原傳, pp. 11151~11152 및 同卷, 崔公度傳, p. 11153 등에 잘 나타나 있다.

84)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 273 참조.

85) 『長編』, 卷254, 熙寧 7年 6月, 乙亥條, p. 2670.

86)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p. 287~288 참조.

熙寧 9年 10月 병으로 고생하던 王安石은 아들 雱의 죽음을 계기로 求去하여 判江寧府로서 金陵에 거주하게 되었고<sup>87)</sup>, 이후부터는 吳充과 王珪가 재상이 되어 정치를 담당하였다. 吳充은 아들이 王安石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新法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재상이 되자 新法을 변혁하기 위해 司馬光, 呂公著, 韓維, 蘇頌, 孫覺, 李常, 程顥 등 舊法系 人物 수십인을 천거하였는데<sup>88)</sup>,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元豐 3年 3月 재상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에는 王珪와 蔡確 등 新法勢力이 다시 정치를 전담하여 新法은 神宗末까지 유지되어 나아갔다. 宋代史에서 유명한 元豐年間의 官制改革도 바로 新法官僚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神宗은 이 新官制를 실시하면서 新法과 舊法人을 兩用하려고도 해 보았으나 蔡確과 王珪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sup>89)</sup>

결국 神宗代의 黨爭에 있어서는 전기간에 걸쳐 舊法官僚가 新法政治에 밀려 지방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자들은 洛陽에 閑居하면서 名利를 초월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리하여 그 곳에는 舊法官僚에 의한 독특한 氣風이 형성됨으로써 神宗一代의 기간동안 新法官僚 중심의 帝都 開封에 대립하는 舊法官僚 중심의 西都 洛陽이라는 특이한 정치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90)</sup>

이상으로 神宗代 新法·舊法을 둘러싸고 官僚間에 발생한 黨爭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仁宗代의 黨爭이 范仲淹의 義氣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神宗代의 黨爭은 王安石의 信念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도 역시 개인감정과 같은 요소보다는 정치이념의 차이가 黨爭의 주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王安石과 議論의 차이가 심하였고 新法에 대한 불편함도 상당히 많이 거론하여 神宗代의 거의 전기간을 地方官으로 지내던 蘇軾이나 孫覺 등이 후에 金陵

87) 『宋史』, 卷327, 王安石傳, p. 10550 및 위의 책, 같은 條, p. 290 참조.

88)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 290.

89) 『宋史』, 卷312, 王珪傳, p. 10242 참조.

90) 吉田清治, 앞의 논문, 『文化』, 1-12(1934), pp. 1475~1496 참조.

에 은거하고 있던 王安石을 방문하여 함께 時局을 논한 것이나<sup>91)</sup>, 司馬光의 王安石이나 呂惠卿에 대한 태도, 즉 그들을 평하여 “安石은 진실로 어질다. 다만 성품이 일에 밝지 못하고 괴팍하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라<sup>92)</sup> 하고 “惠卿은 진실로 學問과 슬기를 갖추었다. 그러나 마음을 쏟지 못하다”라고<sup>93)</sup> 하여 그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 등은 神宗代의 黨爭에서 개인감정이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물론 이 때의 黨爭도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편견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熙寧 7年 王安石이 잠시 知江寧府로 있을 때 呂惠卿이 鄭俠의 獄과 李士寧의 獄을 일으켜 王安石의 복귀를 막으려 했던 사실은<sup>94)</sup> 각 집단 내부에서도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이나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완전히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神宗이 陳升之를 재상에 임명했을 때 司馬光이 南人의 성격을 분석, 비난하여 그들이 재상이나 執政의 직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 하였던 사실을 보면<sup>95)</sup> 地緣關係가 黨派의 형성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시 黨派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역시 新法·舊法에 대한 찬·반 양론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치이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다른 요인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으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神宗代 黨爭의 성격 또한 정치이념의 대결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孫覺과 같이 평소 王安石과 친교가 두터웠던 官僚 중에서도 王安石이 新法을 실시하면서

91) 『宋史』, 卷338, 蘇軾傳, pp. 10809~10810, 卷344, 孫覺傳, p. 10928.

92) 『長編』, 卷210, 熙寧 3年 夏 4月 甲申條, p. 2236.

93) 『宋史紀事本末』, 卷37, 王安石變法條, pp. 265~266.

94) 『宋史』, 卷327, 王安石傳, p. 10548.

95) 註) 10 참조.

그로 인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된 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나<sup>96)</sup> 전술하였던 吳充이 아들은 王安石의 딸과 결혼했으나 자신은 재상이 되면서 新法을 변혁하기 위해 많은 舊法系 人物을 추천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역시 다른 요인보다도 정치이념이 우선하고 있는 神宗代 黨爭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王安石이 新法을 제창하면서 조정 내의 많은 官僚로부터 반대는 받았지만 神宗 一代의 기간동안 新法에 동조하는 젊고 의욕에 찬 새로운 人物을 대거 등용시킴으로써, 이들이 이후의 관료사회에서 상당한 수를 점유하여 결국 新法勢力이 北宋末期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을 확립해 주었다는 점도 주목해 보고 싶다. 이러한 현상을 舊法官僚인 范祖禹는 哲宗에게 보내는 上疏文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熙寧初에 王安石과 呂惠卿이 新法을 造立하고 祖宗의 法을 모두 변경하였다. …… 마침 先帝(神宗)께서 깨달아 알게 되면서 兩人을 물리쳐 배척하였으나, (그들이) 끌어 들인 바의 수많은 小人은 이미 中外에 가득차 다시 제거할 수가 없다.<sup>97)</sup>

주지의 사실이지만, 王安石의 新法은 宋朝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즉 世務를 다스리기 위해 입안된 것이었다. 王安石이 科擧에서 經義를 강조했던 이유도 그것이 世務를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 시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sup>98)</sup> 따라서 神宗代 등용된 관료는 王安石의 經義를<sup>99)</sup> 사용하여 進取의 뜻을 이루는 자가 많았는데<sup>100)</sup>, 이들은 대개 新法政治에 가담하여 王安石에게 동조하고 있었다. 哲宗代의 科擧

96) 『宋史』, 卷344, 孫覺傳, pp. 10925~10927 참조.

97) 위의 책, 卷337, 范祖禹傳, pp. 10798~10799. 卷281, 畢仲游傳, pp. 9525~9526의 仲游가 司馬光에게 보낸 편지내용 중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98) 위의 책, 卷327, 王安石傳, p. 10544, “安石對曰 經術正所以經世務.”

99) 위의 책, 王安石傳, p. 10550에 보면, 王安石은 “詩” “書” “周禮”를 訓釋하여 學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天下는 이를 “新義”라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 王安石의 經義란 이 “三經新義”를 말하는 것이다, 위의 책, 卷356, 崔鶯傳, p. 11216에는 “王安石除異己之人 著三經之說以取士”라 한 내용이 있다.

100) 위의 책, 卷344, 孔文仲傳, p. 10932, “學者方用王氏經義進取”라 했다.

에서 經義를 폐지하자는 의론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詩賦와 經義로 科擧를 나누어 人才를 채용하는 절충안이 나오게 된 것도 神宗대에 經義로써 과거를 통과한 新法官僚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 실무에 능한 新法官僚가 哲宗 이후에도 관료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新法·舊法官僚간의 黨爭은 北宋末까지 지속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 V. 哲宗代 이후 黨爭의 심화

神宗 死後, 어린 나이로 즉위한 哲宗을 대신해 祖母인 宣仁太后가 聽政을 하면서 정치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그는 神宗代부터 王安石을 知江寧府로 내보내게 할 정도로 新法에는 반대하고 있었다.<sup>101)</sup> 그리하여 이 때에는 司馬光을 비롯한 舊法官僚가 대거 등용되고 新法官僚는 政界에서 밀려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여세를 이용하여 司馬光 등이 新法官僚에 대한 억압을 철저히 하면서 이후의 黨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黨爭이 정치이념의 대립이란 성격에서 벗어나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 세력다툼으로 변하면서 范仲淹의 義氣나 王安石的 信念은 사라지고 新法官僚와 舊法官僚 간에 자리잡고 있던 감정 대립이 표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仁宗·神宗대의 黨爭에 있어서와 같은 政敵에 대한 관대함은 찾아 볼 수 없고 상호간에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徽宗·欽宗代까지 계속되어 결국 北宋 멸망이라는 정치적 불행은 앞당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哲宗 元祐年間(1086~1093) 이후의 黨爭은 이와 같이 그 禍가 國家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화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면에서 이 시기는 宋代 黨爭史에 있어서도 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다.

101) 위의 책, 卷327, 王安石傳, p. 10548.

元豐 8年(1085) 3月 神宗의 뒤를 이어 哲宗이 즉위하자 宣仁太后는 곧 司馬光을 門下侍郎으로 임명하고 政事를 그와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王安石의 지적에 “新法을 의논하면서 시종일관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자는 曾布이며 시종일관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자는 司馬光이다”라고<sup>102)</sup> 한 말이 있듯이, 新法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던 司馬光은 政界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新法의 폐지와 舊法의 부활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당시 宰相으로 있던 蔡確과 韓縝이 차례로 물리나고 元祐元年 閏 2월에 司馬光이, 4월에 呂公著가 宰相이 되면서 舊法官僚는 政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舊法官僚는 政權을 잡은 후 “訴理所”라는 심의기관을 설치하여 新法을 철폐하고<sup>103)</sup>, 熙寧·元豐年間の 新法官僚에 대해서도 中央政界에서 그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지방으로 좌천시켰다.<sup>104)</sup> 당시 新法은 金陵에 있던 王安石을 놀라게 할 정도로 철저히 폐지되었는데, 舊法官僚 중에서도 畢仲游나 蘇軾, 蘇轍과 같은 인물은 이러한 신법폐지에 반대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그것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畢仲游 등도 新法에 반대하여 그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神宗代의 新法政治를 이끌어 나간 官僚들이 조정에서 밀려났다고는 하나, 그 黨은 이미 中外에 상당히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新法에 대한 개혁을 급진적으로 하는 경우 이들을 자극하여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sup>105)</sup> 그러나 司馬光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모든 新法에 대해 일제히 개혁을 단행함으로써<sup>106)</sup> 결국은 新法官僚의 원한을 살 수 밖에 없었다. 宋代史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元

102) 『宋名臣言行錄五集』, 後集, 卷6, 王安石條, p. 577.

103) 『宋史』, 卷200, 刑法志-2, p. 5000.

104) 片野裕子, 앞의 논문, pp. 50~51 참조.

105) 『宋史』, 卷281, 畢仲游傳, pp. 9525~9526 및 卷338, 蘇軾傳, pp. 10810~10811, 卷339, 蘇轍傳, p. 10824 참조.

106) 위의 책, 卷336, 司馬光傳, pp. 10767~10768.

祐更化”라 부르고 있거니와<sup>107)</sup>, 이를 기점으로 新法·舊法官僚 간의 黨爭에서 정치이념문제는 뒤로 물러나고 政權爭奪戰 현상이 표면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司馬光은 宰位에 오른지 8개월만에 죽고 후에는 呂大防, 呂公著, 文彥博, 范純仁 등이 宰相이 되었는데, 그들은 힘을 합하여 王室을 도와 “元祐의 政盛”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元祐初부터 舊法官僚 사이에 자리잡고 있던 의견대립이 司馬光의 죽음을 계기로 표면화하면서 舊法勢力은 洛·朔·蜀의 3黨으로 분열하였으며, 각 黨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 배격하여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程頤를 중심으로 한 洛黨과 蘇軾을 중심으로 한 蜀黨 사이의 다툼은 더욱 심하여 舊法官僚社會 내부에서의 의논통일은 쉽게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sup>108)</sup> 御史中丞 胡宗愈가 哲宗에게 “君子無黨論”을 進獻하였던 배경에는 舊法勢力 내부에서 발생한 黨爭의 폐해가 컸다는 이유도 자리잡고 있었다.<sup>109)</sup>

상기한 바와 같이 元祐年間に 政權을 장악한 舊法勢力은 다시 내분되어 그들 사이에서도 黨爭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舊法內에서의 분열이었고, 그러한 중에서도 新法과 新法官僚의 진출을 억제시키려 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들 거의가 한결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관료사회 전체를 통하여 보면, 이미 神宗代부터 新法政治에 가담하였던 많은 관료들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들의 舊法政治에 대한 불만 역시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舊法官僚는 呂大防이나 劉摯과 같이 新法官僚와 타협할 것을 모색하는 부류도 있었다. 이를 “調停”이라 하였는데, 대다수의 舊法官僚는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당시 舊法官僚의 新法官僚에 대한 태도는 蘇轍이 “調停”의 불가함을 宣仁太后에게

107) 『宋史紀事本末』, 卷 43, 元祐更化, pp. 328~340 참조.

108) 위의 책, 卷45, 雜蜀黨議, pp. 349~354 참조. 黎傑, 『宋史』(九龍:學津書店, 1979), pp. 80~81에는 洛·朔·蜀의 구성원과 그 성격에 관한 분석이 되어 있다.

109) 『宋史』, 卷318, 胡宗愈傳, p. 10370 참조.

上疏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 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君子와 小人은 함께 거처할 수 없다. ……君子를 가까이 하고 小人을 멀리하면 군주는 존엄해지고 나라는 편안해 진다. ……君子와 小人은 그 형제가 氷炭과 같아 함께 거처하면 반드시 싸운다. 한번 싸우고 나면 小人이 반드시 이기고 君子는 반드시 패한다. 왜냐하면 小人은 利를 탐하고 부끄러움을 참아서 그들을 물리쳐도 떠나게 하기가 어려우나 君子는 몸을 깨끗이하고 義를 중히 여겨 그들을 막으면 곧 물러나기 때문이다. ……<sup>110)</sup>

이 上疏文으로 인해 “調停”의 說은 가라앉았거니와, 이로써 보건대 舊法官僚들은 新法官僚를 상종할 수 없는 小人이라 하여 그들의 中央政界進出을 완전히 차단하려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舊法官僚의 新法官僚에 대한 억압이 이와 같이 심해지면서 新法官僚의 舊法官僚에 대한 감점 또한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元祐8年 宣仁太后의 死後, 親政을 하게 된 哲宗이 新法官僚를 중용하여 新法政治가 부활되면서 이후의 정치는 元祐年間の 舊法政治에 대한 복수전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哲宗이 新法官僚를 중용한 것은 舊法官僚의 洛·朔·蜀 3黨 분열로 元祐政治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이 외에 舊法官僚에 대한 哲宗의 개인적인 유감 또한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宋史』, 蘇頌傳에 보이듯이, 宣仁太后가 攝政할 때 대부분의 舊法官僚는 太后의 뜻에 따라 매사를 결정하였고 哲宗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sup>111)</sup> 그리하여 蘇頌은 “임금이 장성하면 누가 그 허물을 당해낼 것인가” 항상 걱정하고 있었는데, 후에 그가 新法勢力의 공격을 받게 되자 哲宗이 “頌은 君臣의 義를 알고 있다”라고 하여 그를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哲宗이 元祐年間の 일을 얼마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나 잘 알 수가 있다. 이러한 舊法官僚에 대한 哲宗의

110) 위의 책, 卷339, 蘇頌傳, pp. 10828~10829.

111) 위의 책, 卷340, 蘇頌傳, p. 10867.

실망에 楊畏와 같은 기회주의 관료의 熙寧·元豐政事에 대한 칭찬이 덧붙여 지면서<sup>112)</sup>, 결국 哲宗은 新法을 채택하게 되었고 新法官僚의 中央政界進出은 활발하여졌던 것이다. 이후의 정치가 舊法官僚에 대한 복수전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게 된 것은 新法官僚는 물론 哲宗 또한 舊法官僚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哲宗이 親政을 시작한 紹聖元年 呂大防, 范純仁을 대신하여 新法官僚인 章惇이 재상으로 발탁되고 蔡卞, 蔡京, 曾布 등 같은 黨의 人物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은 “紹述”을 國是로 삼아 元祐年間に 폐지되었던 모든 제도를 회복하고 舊法官僚에 대한 보복정치를 시작하였다.<sup>113)</sup> 이 때 司馬光과 呂公著의 神道碑가 파괴되었으며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으나 그들의 묘를 파내 棺을 부술 것을 주청하기도 하였다. 그 외의 舊法官僚에 대해서도 黨獄을 연이어 일으켜 그들을 제거하기에 부심하였는데<sup>114)</sup> 劉摯과 梁燾 등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이유로 同文館의 獄을 일으키고 蔡京, 安惇, 蹇序辰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였을 때에는 元祐의 舊臣을 모두 죽이려고 까지 하였다. 哲宗 이후의 黨爭은 바로 이러한 詔獄의 유행에 의해 더욱 격렬하여졌다고 하겠다.

黨爭의 성격이 완전히 변함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黨爭의 폐단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상기한 詔獄의 유행 외에 元祐諸臣의 言行에 관계되는 기록도 모두 압수하여 남기지 않았으며,<sup>115)</sup> 史官은 歷史 기록을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작성하여 史禍가 일어나기도 하였다.<sup>116)</sup> 특히 “訴理所”를 세워 新法官僚를 탄압한 元祐年間の 일을 밝히

112) 宋代 黨爭의 와중에서는 출세를 위해 黨과 黨 사이에서 수시로 태도를 돌변하는 기회주의자도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楊畏이다. 그의 태도변화를 당시에 “楊三變”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가 “進於元豐, 顯於元祐, 遷於紹聖”한 것을 말한다. 그는 결국 蔡京에 의해 “元祐黨籍”에 들어 갔다. 『宋史』, 卷355, 楊畏傳, pp. 11183 ~ 11184 참조.

113) 위의 책, 卷471, 姦臣—1, 章惇傳, p. 13711

114) 위의 책, 卷200, 刑法志—2, p. 4990.

115) 위의 책, 卷329, 蹇序辰傳, p. 10606, 徐鐸傳, p. 10607 참조.

기 위해 “看詳訴理局”을 설치하고 中書舍人 安惇으로 하여금 그 일을 總理하도록 하였을 때 죄를 얻은 자가 830家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sup>117)</sup> 이러한 黨爭의 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哲宗의 뒤를 이어 徽宗이 즉위하면서 黨爭의 폐단은 한층 더하여졌다. 哲宗 死後, 왕위 후계문제에 까지 개입하던 章惇은 이 혼란기의 수습 책임을 皇太后 向氏가 맡게 되면서 右正言 任伯雨 등의 탄핵을 받아 지방으로 좌천되고 新法勢力은 동요하였다.<sup>118)</sup> 이 때 舊法官僚의 등장이 어느정도 엿보이거니와, 范純仁 등의 官이 회복되고 司馬光, 呂公著 등 33인의 官도 追復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年號도 建中靖國이라 고치고 舊法官僚 韓忠彥과 新法官僚 曾布를 재상으로 하여 新法·舊法政治를 절충함으로써 黨爭의 폐단을 없애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徽宗은 원래 熙寧·元豐의 政事, 즉 新法政治에 뜻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皇太后가 죽고 親政을 회복하자 年號를 崇寧이라 고치고 곧 韓忠彥과 曾布를 대신해 蔡京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는데, 그가 정치를 담당하게 되면서 舊法官僚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하여 졌던 것이다.

徽宗이 新法을 선택한 이유는 神宗·哲宗代 新法을 실시한 것이 祖宗之法의 준수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때문이지만<sup>119)</sup>, 이 외에 政界에서 이미 강한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었던 新法勢力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鄧洵武가 蔡京을 재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의 조정대신을 분석한 “愛莫助之圖”에서는 元祐年間の 舊法系人物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元豐年間の 新法系人物은 소수였다고 하는데,<sup>120)</sup> 당시와 元豐年間과는 약 18年間の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

116) 위의 책, 卷329, 鄧洵武傳, p. 10599, 卷348, 徐勣傳, p. 11025에는 이러한 史禍가 徽宗代까지 계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17) 위의 책, 卷200, 刑法志-2, p. 5000,

118) 위의 책, 卷471, 姦臣-1, 章惇傳, p. 13713 참조.

119) 崇寧元年 蔡京이 學士承旨로 있을 때, 그에게 “神宗創法立制 先帝繼之 兩遭變更 國是未定 朕欲上述父兄之志 卿何以教之”라 한 말에서 徽宗의 新法 수행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다. 『宋史』, 卷472, 姦臣-2, 蔡京傳, p. 13722.

120) 위의 책, 卷327, 鄧洵武傳, p. 10600 참조.

가 그 동안 감소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때에는 元豐의 舊臣이 아닌 신진의 新法系 人物이 상당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본다. 鄧洵武도 바로 이러한 人物이며, 이들이 新法系의 舊臣을 지도자로 추대하여 결국 성공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崇寧 2年 正月 宰位에 오른 蔡京은 三司條例司의 故事에 따라 都省에 講議司를 설치하고 스스로 提舉가 되어 그곳에서 新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sup>121)</sup> 그는 元祐의 舊法官僚에 대하여는 中央政界에서 몰아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미 崇寧元年 9월에 司馬光을 우두머리로 하는 120人 姦黨의 碑를 太學 端禮門 밖에 세우고 각지에도 그 碑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2年 9월에는 다시 宗室이 이들의 자손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조칙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sup>122)</sup> 또한 3年 6월에는 元符末의 日食求言 때 熙寧·紹聖의 정치를 비난했던 자도 范柔中 이하 籍을 만들었다. 이들 兩籍에 오른 자는 모두 합해 309人으로 朝堂에 그 碑를 세우고 자손들까지 속박하여 京師나 近畿에서 官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sup>123)</sup> 이로써 볼 때, 徽宗의 崇寧年間に 이르러 黨爭은 본인은 물론 그 禍가 자손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과격하여 진 것을 볼수 있다.

물론 新法官僚 중에서도 蔡京의 과격한 조치에 반대하는 자는 많이 있었다. 崇寧 4年 彗星이 나타났을 때 毛注가 黨碑를 철거하고 새로운 길을 열 것을 상주하고 있는 것은 新法勢力 내부에서도 蔡京의 극단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였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sup>124)</sup> 元祐黨人碑에 張商英과 같은 新法官僚가 들어 있는 것도 바로 蔡京과 政論을 달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章惇의 천거로 王安石에 의해 監察御史로 발탁된 이후 哲宗·徽宗대에 이르기까지 新法の 수행을 위해

121) 위의 책, 卷472, 姦臣—2, 蔡京傳, pp. 13722~13723 참조.

122) 위의 책, 卷19, 徽宗本紀—1, 崇寧 2年 9月 辛巳條.

123) 이 黨人碑에 관한 내용은 侯紹文, 「黨人碑」, 『大陸雜誌』, 18-1(1959), p. 16 및 「元祐黨人碑」『國粹學報』, 6-8(1910), pp. 4157~4162 참조.

124) 『宋史』, 卷348, 毛注傳, p. 11034 참조. 同卷의 黃葆光, 石公弼, 張克公傳 등에도 蔡京에 반대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노력하였으나, 蔡京과 政見이 맞지 않아 수차 대립하던 중, 결국 黨人 碑에 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sup>125)</sup>

蔡京은 이들의 반대에 밀려 大觀 3年 재상직에서 물러나 杭州에 거하기도 하였는데, 政和 2년에는 다시 宰位에 올라 欽宗代까지 政權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元祐의 舊法學術을 금하고 元豐法制를 수행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新法官僚 중에서도 蔡京에 의해 화를 당한 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欽宗 靖康元年 北宋의 멸망 직전까지 新法勢力은 政界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徽宗末年 蔡京, 童貫, 王黼 등이 太宗 이래의 宿望이던 燕雲 諸州의 회복을 위해 일으킨 “燕山の役”이 오히려 金軍의 침공을 유발시켜 北宋社會가 위태로와 지면서부터는 舊法官僚의 중앙정계진출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欽宗은 즉위 초부터 舊法政治의 부활에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sup>126)</sup> 靖康元年에는 舊法系 人物도 다수가 정계에 등용되었는데, 이들이 國難의 책임을 新法勢力에게 돌리면서 黨爭은 더욱 치열하여 졌다. 太學生 陳東이 蔡京, 王黼, 童貫, 梁師成, 李邦彥, 朱勳을 6賊이라 하여 주살할 것을 상소한 외에도 많은 新法系 人物이 쫓겨나가거나 죽임을 당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sup>127)</sup>, 이 때에는 黨爭의 상황이 詔獄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죽음에 까지 이를 정도로 그禍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右諫議大夫 楊時は 화의 근본이 王安石에게 있다고 하여 그의 지위를 말살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官僚는 王安石의 經義를 사용하여 등용된 자가 많았기 때문에 楊時の 上言은 배척되고 의론은 분분한 상태에 있었다. 화의 근본은 오직 蔡京과 童貫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 자가 많았으니, 기왕

125) 元祐黨人碑에는 이 외에도 많은 新法官僚가 수록되어 있거니와 蔡京은 王珪, 章惇도 별도로 하나의 籍을 만들어 元祐黨과 같이 취급하도록 했다. 『宋史』, 卷19, 徽宗本紀—1, 崇寧 3年 2月 己酉條 참조.

126) 위의 책, 卷362, 呂好問傳, p. 11329의 “欽宗諭之曰 卿元祐子孫 朕特用卿 令天下知朕意所嚮”이라 한 데에서 알 수 있다.

127) 위의 책, 卷200, 刑法志—2, pp. 5000~5001 참조.

의 지적과 같이 靖康元年是 舊法官僚 대두의 시기였지 新法·舊法 양세력의 교체가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sup>128)</sup> 따라서 哲宗의 親政 이래 계속 政界를 지배하여 온 新法勢力은 결과적으로 볼 때 金軍의 힘에 의해 붕괴된 것과 같은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哲宗 元祐年間 이후의 黨爭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때의 黨爭 역시 新法과 舊法政治의 대립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는 이미 정치이념 문제는 뒤로 밀려났고 黨爭이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 세력다툼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新法과 舊法官僚간에 누적되어온 사사로운 대립감정이 표면에 등장함으로써 黨爭은 점점 더 격렬하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仁宗·神宗代와 달리 이 때에는 黨爭의 폐해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혼란도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특히 金の 침공이라는 國難의 시기에 관료사회 내부가 黨派로 힘이 분열됨으로써 亂世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北方民族에게 華北地方을 쉽게 내어 준 것은 黨爭의 禍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었다고 본다.

## VI. 黨爭 구성원의 성격 분석

宋 이전 黨爭의 구성원은 전통적인 귀족과 새로이 등장한 新興勢力이라고 하는 성격이 다른 계층으로서, 그들 사이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연합과 대립이 黨爭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sup>129)</sup> 그러나 宋代에는 당시의 지배계급으로 새롭게 등장한 士大夫官僚라는 동일 계층이 지역감정이나 정치이념의 차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黨爭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北宋代 黨爭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기존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세력과 기존에 대한 변혁을 주장하는 세력으

128) 外山軍治, 『靖康の變に於ける新舊兩法黨の勢力關係』『羽田論叢』, 1950, pp. 678~681 참조.

129) 築山治三郎, 『唐代政治制度の研究』(大阪: 創元社, 1967), pp. 235~248.

로 나뉜 士大夫官僚들이 밀어내기식 싸움을 계속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新法勢력과 舊法勢력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해 보겠다.

新法政治가 江南出身 官僚의 주도 하에, 그리고 舊法政治가 華北出身 官僚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 나아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神宗代는 물론이고 哲宗 元祐年間 이후에도 최상부에서 新法政治를 주도해 나간 人物을 살펴 보면 江南出身者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위 元祐의 諸君子는 대개 華北出身者이다. 이는 新法·舊法官僚 간의 다름이 지도층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지역관념의 의미를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宋代史에 있어서 新法과 舊法이라는 대립적인 정치이념이 형성되기까지 華北과 江南으로 분리된 宋代官僚 특유의 出身地 차별의식에 따른 地緣關係가 밑바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로 인하여 新法과 舊法은 그 주도세력이 北宋末까지도 江南 대 華北이라는 지역성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층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저변에서 新法勢력과 舊法勢력을 형성하고 있던 士大夫官僚 개개인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그들의 많은 수가 出身地域과의 관계를 떠나 단지 新法·舊法을 둘러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결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神宗代부터 이미 新法과 舊法이 공히 한 시대의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면서 士大夫官僚 중에는 地域성과 관계없이 정치이념에 의해 어느 한 편에 참여한 자가 많아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新法勢력과 舊法勢력의 형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려 할 때, 지역성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北宋代의 黨爭은 지역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이념 상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면에서 파악되어야 新法勢력과 舊法勢력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新法勢력과 舊法勢력에 관한 내용으로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하여 그것이 곧 같은 黨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같은 세력이라 해도 정치적인 주장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다시 내부적으로 분기되는 많은 예를 보았다. 元祐年間에 舊法勢력이 洛·朔·蜀의 3黨으로 분열하여 서로 배격 하였던 것을 살펴 보았고, 또한 哲宗 親政 이후 北宋末까지 中央政界를 장악하고 있던 新法勢력 역시 정권을 담당한 人物이 바뀔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도 상호 공방전이 전개됨으로써 新法官僚가 新法官僚에 의해 화를 입고 있는 사실도 보았다. 따라서 新法勢력 전체를 新法黨, 舊法勢력 전체를 舊法黨이라 하여 각 세력전체를 모두 하나의 같은 黨으로 파악한다면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新法勢력 내에서 舊法勢력을 배척하고 新法政治를 추진시켜 나가려는 朋黨이 형성되고, 舊法勢력 내에서도 新法勢력을 배척하고 舊法政治를 수행해 나가려는 朋黨이 형성되었던 것은 분명하며<sup>130)</sup>, 이로 인해 당시의 政爭이 黨爭으로 파악되는 것이지만, 新法·舊法官僚 중에는 朋黨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朋黨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자도 존재하고 있었다.<sup>131)</sup> 그리고 기왕에 형성되었던 朋黨의 구성원 역시 그것이 이후까지 그대로 일정하게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세력 내에서도 정권을 담당하는 人物이 바뀌에 따라 수차례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神宗代 이후의 官僚는 新法勢력, 舊法勢력으로 쉽게 大別해 볼 수는 있으나, 그들을 新法黨, 舊法黨으로 구분하여 黨이란 용어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은 仁宗代의 黨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다.

130) 南宋代 高宗도 北宋代의 朋黨을 논하여, 君子·小人 모두가 黨을 형성하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宋史』, 卷376, 常同傳, p.11624에 “上曰朋黨亦難破……上曰君子小人皆有黨”이라 하였다.

131) 그 대표적인 인물로 胡宗愈와 陳瓊을 들 수 있다. 『宋史』, 卷318, 胡宗愈傳, p. 10370, 卷345, 陳瓊傳, p. 10961 참조.

中國 歷代의 史書들이 黨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발전적인 면보다는 정치를 항상 파국으로 몰고 간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宋代의 黨爭 역시 이와 같은 결과론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宋代 黨爭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黨爭 구성원 사이에 맺어진 人脈關係의 성격을 분석해 봄으로써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新法官僚는 물론 舊法官僚도 역시 현실에 대한 改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꾀한 개혁의 정도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그러한 속에서 많은 관료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없애려 하기 보다 상대의견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 속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黨爭은 심하여졌다고 본다. 元祐年間 “調停”의 의론이 蘇轍의 君子·小人論에 의해 거부되었던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시 士大夫 사이에는 君子와 小人의 구별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스스로를 君子의 위치에 두고 상대를 小人이라 하여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였거니와<sup>132)</sup>, 蔡京의 경우를 보면 蘇軾, 黃庭堅, 范鎮, 沈括 등의 저서를 보관하는 것조차 급할 정도였던 것이다.<sup>133)</sup>

만일 黨爭이 政權爭奪戰으로 변하지 않고 초기의 모습대로 정치이념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元祐나 建中靖國年間 양세력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다면 政治는 혼란보다는 오히려 발전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宋의 官僚社會가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세력으로 갈라져 타협을 모르고 의론이 통일되지 않았던 것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던 결점이며 불행이었다고 하겠다.

宋代 社會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게 된 것은 다른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당시 士大夫들이 형성하고 있던 人脈關係內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132) 당시 士大夫官僚의 君子·小人 구별의식에 관한 내용으로는 『宋史』, 卷345, 任伯雨傳, p. 10965, 卷356, 論贊條, pp. 11212~11213 참조.

133) 위의 책, 卷356, 崔鶯傳, p. 11216 참조.

있을 것이다. 宋代에는 士大夫 사이에 맺어진 人脈關係가 쉽게 약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부상조의 성격이 강하였고, 그러한 속에서 士大夫 자신은 사회적 지위도 성장시켜 가고 있었다.<sup>134)</sup> 『宋元學案』에서는 정치이념을 같이 한 관료 간의 관계를 同調로서 표현하여 분석해 놓고 있는데 人脈關係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黨爭이 격화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의견이 같은 자가 결합하여 다른 의견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집단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은 집단내의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심하여지며, 다시 분쟁이 심해지면서 각 집단의 결속력이 더욱 강하여지는, 그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 또한 더욱 가혹해지는 연쇄작용, 이러한 宋代 士大夫社會 內部에 자리잡고 있던 人脈關係 속에서 黨爭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北宋 멸망 이후, 王安石 및 그의 新法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다. 南宋을 건립한 高宗부터가 이미 北宋 멸망의禍를 王安石에게까지 돌리고 新法을 法家的인 성향으로 몰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sup>135)</sup>, 성리학자로 유명한 朱熹에게서도 王安石의 新法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sup>136)</sup> 또한 『宋史』, 論贊에서는 神宗·哲宗·徽宗대의 정치가 新法官僚를 기용했다 하여 失政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37)</sup> 이와 같이 北宋 멸망으로 上層部가 괴멸된 新法勢力은 그 멸망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면서 후세인들로부터 小人, 姦黨으로 지탄을 받아 이후에는 政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sup>138)</sup>, 南宋대에 들어오면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한 舊法系の 學說이 儒

134) 拙稿, 『北宋代四川士大夫社會의 形成에 관하여』 『史叢』, 29(1985), pp. 63~68.

135) 『宋史』, 卷381, 王居正傳, p. 11736.

136) 위의 책, 卷327, 論贊, p. 10553.

137) 위의 책, 卷16, 神宗本紀-3, 論贊, 卷18, 哲宗本紀 2, 論贊, 卷22, 徽宗本紀 4, 論贊.

138) 위의 책, 卷381, 王居正傳, p. 11737에 보면 이미 高宗대에 “天下遂不復言王氏學”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다.

學의 正統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王安石이 新法을 제창한 이후 北宋의 멸망 직전까지 黨爭의 와중에서도 新法勢力이 정치사회의 흐름을 계속 주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新法官僚들의 끈질긴 집념이 뒷받침되었다고는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新法이 舊法보다 北宋社會의 현실에 그만큼 부합되었고 필요시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후 新法系의 學說이 官僚社會에서 완전히 배척되기에 이른 것은 新法 자체내의 결함보다는 역시 北宋末期의 黨爭의 여파가 후대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요즈음에는 王安石이 立案하였던 정책과 정치제도가 긍정적인 면에서 재평가되고 있으나 그의 인간성이나 그가 맺고 있던 人脈關係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만일 극심했던 정치 혼란이나 北宋 멸망이라는 정치적인 불행을 가져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오로지 新法勢力에게 돌린다면, 이는 南宋代 이후 줄곧 新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中國 史料上的 기록을 그대로 따르고 北宋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 보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北宋代 黨爭의 전개상황을 조금만 깊게 고찰해 본다면, 그 원인이 新法·舊法을 막론한 君子·小人論에 빠진 모든 黨爭 구성원의 의식구조, 더 나아가 그의 의식구조를 형성시킨 士大夫官僚 사이의 人脈關係 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 VII. 結 語

北宋代 黨爭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논문도 다수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의 쟁점이 어느 한가지 특정한 부분에 치우쳐 있어 시대 전반에 걸친 黨爭의 실체와 성격 및 그 윤곽을 통일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의도 하에 北宋代 전기간에 걸쳐서 黨爭의 상황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먼저 黨爭은 朋黨 간의 다툼을 의미하기 때문에 英宗代 濮議와 같이 朋黨形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관료사이의 논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거니와, 지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래에는 宋代 黨爭의 발생배경으로서 血緣, 地緣, 師弟, 姻戚關係나 舉主와 被舉人과의 관계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다른 시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순한 설명보다는 이들이 宋代에 와서 왜 黨爭을 야기시키도록 집중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黨爭의 원인을 당시의 士大夫社會가 안고있던 특수한 사회요인으로부터 찾아보려 하였다. 그리하여 관찰대상을 사회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두가지로 대별하여, 전자에서는 당시 士大夫社會 내부에 지역감정에 의한 대립의식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는 점, 그리고 후자에서는 皇帝權의 강화와 士大夫官僚의 신분보장이라는 양면적인 두 요소가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黨爭은 진행과정 상에서 볼 때 성격상 仁宗代, 神宗代, 哲宗代 이후의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 즉, 仁宗代에는 黨爭이 처음 발생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가라앉았으며, 神宗代에 다시 재개되었고, 哲宗代 이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이 경우 仁宗代와 神宗代 사이의 차이점으로서는, 仁宗代 黨爭은 정치이념의 대립이란 성격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黨爭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그러한 성격이 강하여진 반면, 神宗代에는 시초부터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또한 仁宗代에는 黨爭의 기간이 길게 잡아도 范仲淹이 좌천된 景祐 3年(1036)에서 그가 죽은 皇祐 4年(1052)까지 16年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서 혁신세력이 보수세력의 반발에 쉽게 무너지고 있지만, 神宗

대부터는 熙寧 2年(1069) 王安石이 新法을 제창한 이후 北宋王朝가 망하기까지 약 58年間 계속되면서 舊法官僚의 반발 속에서도 新法勢力이 거의 전기간에 걸쳐 政界를 주도해 나아갔다. 이와 같은 黨爭의 기간이나 개혁주도세력의 政局 운영의 측면에서도 양 시대 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神宗代와 哲宗代 사이의 차이로는, 神宗代까지의 黨爭이 政治理念의 대립이란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데 비해 哲宗代 이후의 黨爭은 그러한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고 치열한 정권쟁탈전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神宗代까지는 政敵에 대해 비교적 너그렘있고 그들간의 개인감정도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黨爭의 禍 또한 발생한 것이 별로 없었으나, 哲宗代 이후부터는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칠 정도로 政敵에 대한 공격이 가혹해짐으로써 여러가지 黨爭의 폐단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黨爭 구성원의 성격분석에서는 黨爭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그대로 넘어가기 쉬운 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첫번째는 대립적인 정치이념이 형성되기까지 華北과 江南으로 분리된 宋代 官僚 특유의 出身地 차별의식에 따른 地緣關係가 밑바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나, 黨爭의 과정 중에서는 地域性보다도 정치이념상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지역성보다 정치이념상의 문제를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당시의 官僚를 新法勢力, 舊法勢力 등으로 쉽게 대별해 볼 수는 있으나 같은 세력이 모두 하나의 같은 黨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고 또한 기왕에 형성되었던 朋黨의 구성원 역시 그것이 일정하게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세력내에서 정권을 담당할 인물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新法黨, 舊法黨 등 黨이란 용어를 붙여 구분하려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는 점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黨爭 구성원의 의식구조를 분석해 볼 때, 北宋王朝가 政治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책임이 어느 한 사람 또는 특정집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黨爭의 와중에서 君子·小人論에 빠져 상대방과의 타협을 철저히 거부하던 新法·舊法을 막론한 黨爭 구성원 전체의 의식구조 및 그러한 의식구조를 형성시킨 그들 사이의 人脈關係 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北宋代 黨爭에 관한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는데, 전시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문의 양이 다소 많아진 것에 비해 부분적으로는 중요한 사항들이 간단한 설명만으로 그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北宋代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던 黨爭을 통일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기타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원고를 달리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 보는 것으로 하겠다.